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비주류 “지도부 책임져라”

지도부 “최악 가정, 신빙성 낮아” 진화…이준석 “정량분석시 더 나빠”



국민의힘이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8일 공개되면서 당내 동요가 커지고 있다.

당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는 “후보도 정해지지 않아 지역구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며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정당별·지역별 지지율 등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한 데 이어, 이날 판세 분석 결과까지

의힘 의원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하태경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며 “그런데도 혁신위를 방해하고 좌초시킨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나아가 관세 보고서 감추기에만 급급하다. 성적 표를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나?”며 “당이 죽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말든 혁신을 외면한다면 우리 당은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당이 위기다. 혁신의 기회를 놓치면 당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의 결정에 국민 기대가 크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빈손 혁신위의 책임은 혁신위를 벌죽 시킨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고, 최재형 의원은 “우리 당 안일함이 매우 걱정스럽다. 당 지도부는 대책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의원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초토화 직전이다. 애써 부정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용산에 할 말 해야 한다. 몇몇 중진이 힘지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자료는 정성적 분석을 한 것이다. 정량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더 나쁘다”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다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4곳 정도”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은 너무 절망적이기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분위기 좋게 보이려고 유선전화 비율을 많이 섞을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병립형 제도로 가면 지난번 (민주당) 180석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송원기 기자

### Photo News



‘서울의 불’ 600만명 돌파…천만 영화 향해 질주

흥행 가도를 달리는 영화 ‘서울의 불’이 9일 관객 600만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불’은 개봉한 지 18일째인 이날 새벽 누적 관객 수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7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극장가에서 이 영화가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에 등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민주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뻔뻔한 태도…尹 굴종외교 탓”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 9일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 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은성 기자



## 내일을 위한 또 다른 도전

### Green Transformation

한 발 앞서 미래를 마주하며,  
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온 GS칼텍스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의 중요로운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발굴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시간끌기 아냐”



공수처 들어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 “그거야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그런 것 없다”고 답한 뒤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

### 5차례 소환 불응 끝에 첫 조사…“통보 방식이 위법”

#### 준비된 질문지만 360여쪽…직권남용 혐의 등 추궁

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 및 특별감사 척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조사에 차정현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질문지만 총 360여쪽에 달하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사무총장 측에서는 변호사 2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태 관련 의혹, 주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하위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종 결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모두 20여건의 고발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지난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과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 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와 유 사무총장은 10월부터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유 사무총장은 다섯 차례 소환통보에도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첫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송진영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조력자 재청구 끝에 구속

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씨를 승용차에 태워 도피를 돋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뒀 수

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검거반을 꾸려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김모씨가 운영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

/ 곽도현 기자

## 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제기 무효”

### “도주 우려 없는데 늦게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팔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하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 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 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

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조씨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6일로 잡혔다.

조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장장을 제출해 평



법정 항하는 조민

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의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장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심경 등을 묻는 말에는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 임성주 기자

## ‘정당한 생활지도’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 안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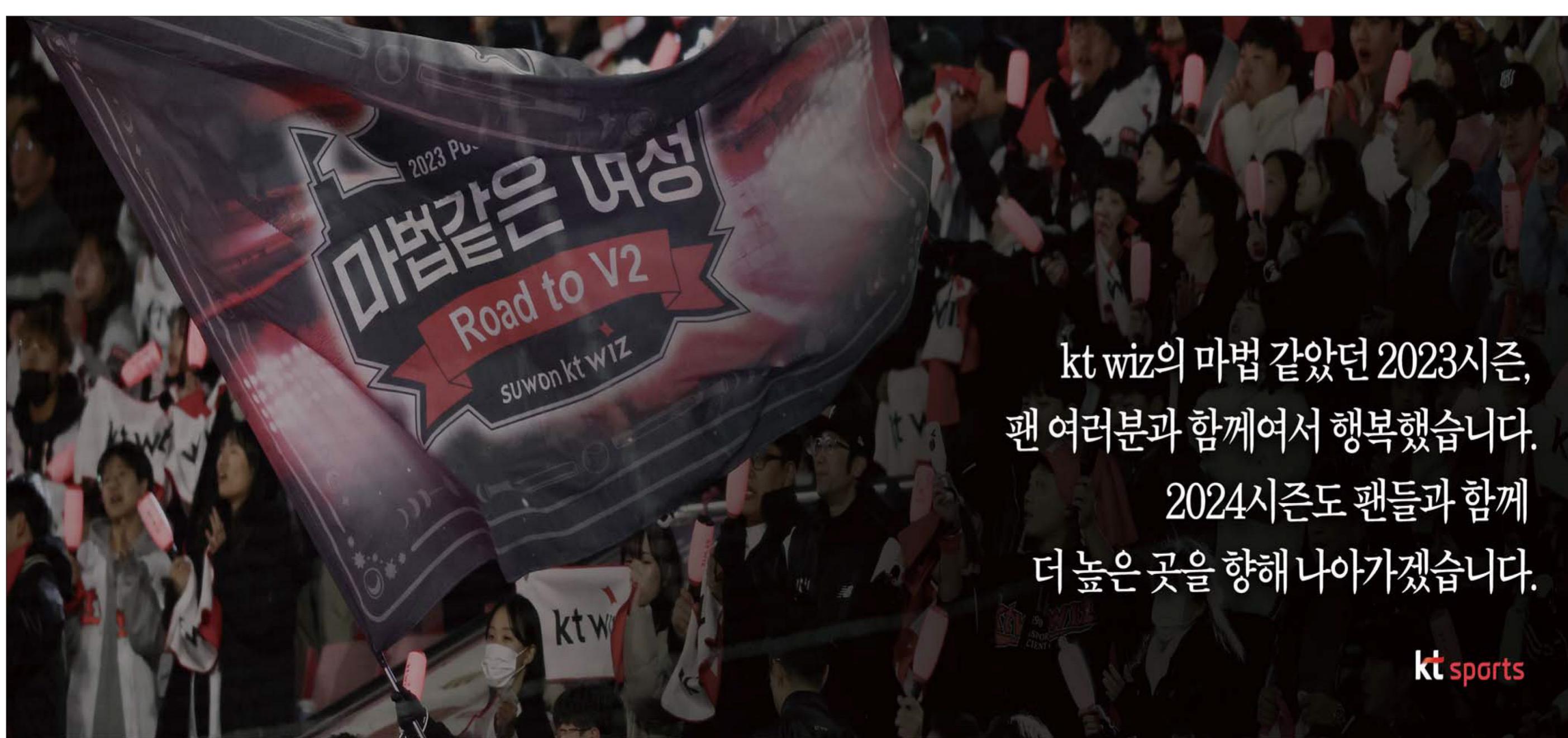
###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국회 통과

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해 참고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 신지호 기자



kt wiz의 마법 같았던 2023시즌,  
팬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2024시즌도 팬들과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kt sports

# 민주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지명 철회해야”



김홍일 권의위원장 국무회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놓고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느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차지해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정 업무와 관련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친윤(친윤석열) 검사’를 앉혔다”며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를까지 국가기관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지만,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해 ‘정치 검사’란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받던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은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행사하듯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불통 인사’, 국민적 반발에도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를 중단하고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권혁수 기자

## 전장연 지하철 시위 8명 체포에 반발…무정차 통과 강경대응

### 혜화역 승강장서 연대 기자회견…경찰, 대치·퇴거요청 불응에 혼행범 체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시위로 활동가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는 하행선이 24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은 8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교통공사와 시위 참가자 간 대치로 열차 무정차 통과가 이어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혼행범 체포했다.

이들 중 4명은 혜화경찰서, 4명은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대표 등 활동가들이 퇴거 명령에 불응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계 단체 관계자 등 60명과 연대



혜화역 나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차 통과 등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퇴거 명령에 불응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8시 13분께부터 24분 동안 혜화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했다. 무정차 통과는 8시 37분께 해제됐으며 지하철 총 8대가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를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8시 13분께부터 24분 동안 혜화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했다. 무정차 통과는 8시 37분께 해제됐으며 지하철 총 8대가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공사는 지난달 23일 전장연이 약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등 지하철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뼈대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국회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가 약 두 달만인 지난달 20일 다시 시위를 시작했다.

이달 1일부터는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가 이 또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원천 봉쇄’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립을 끊고 있다.

/ 황순길 기자



## 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

### 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확대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

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옮겨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와 요양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 암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 노승만 기자

## 정부, 위안부 소송 日상고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할것”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 합의로 존중”…日, 한국내 소송 무대응 일관



일본정부 법정배상 촉구하는 ‘위안부 손배’ 원고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상식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 최해성 기자

## “건달 자존심 구겼잖아”

### 재떨이로 때리고 거액 요구한 조폭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면 후배를 재빨리 마구 때리고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죄값을 줄여보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후배 B(36)씨에게 ‘너 때문에 4년이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빨리

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B씨의 귀를 자를 듯한 태세를 취하면서 ‘건달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원을 달라, 당장 1천만원 주고 매달 1천만원씩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정지돼 출금할 수 없고, B씨로 인해 선배와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기분이 상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 서정미 기자



## 미래의 길을 잊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총 4개 법안, 291명 표결서 찬성 175~177표·반대 113~115표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행사였다. 현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 힘(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여야는 본회의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노조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위원회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다져온 노사 관계의 근간을 훼손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많은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산업 여건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령방송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를 막아내고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방송3법은 공영 방송을 시청자에게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

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맞섰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본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데홀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고 ‘거부권 날카로운 윤 대통령 규탄’,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당론 부결’을 결정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두 법은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경우 예상되는 법안들로,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비판했다.

/ 송원기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정당준비위원장,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제3지대’ 새로운선택-신당 창당 선언

###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연합정당”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이 8일 새 정당을 함께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과 세번째권력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새 정당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당은 앞으로 제3지대 ‘빅 텐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모든 개인 및 진영과 연대를 추진해 더욱 큰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과 연합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분들이 고민해서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부터 정의당 출신까지 한데 모이는 구상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 그걸 조정하는 게 좋은 정치라 생각한다”면서 “신당에서는 노동 문제, 민생 문제 등을 모두 중요하게 다룰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면서 세번째권력의 공동운영위원장인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에 남아 다른 사람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녹색당 등이 합류하는 선거연합정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류 의원은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당원 총투표가 남아있기에 아직 당의 총선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결정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장호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건강한 정치후원금에서  
온창한 숲을 이루듯  
비우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http://www.give.go.kr)

## 송영길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수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입장을 던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북콘서트를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다른) 공직 선거에 비해 비난 가능성 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의 선거인 데다 2년 전의 일”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억울한 점은 판사 앞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수부 검사는 후퇴가 없고,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윤석열 세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반윤석열 세력이 모두 모이는 전면적 플랫폼 당을 만드는 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평계(실패 책임을)를 전북에 떠넘기며 새마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서는 부산에서는 내년 총선 민심을 잡기 위해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떡볶이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면서 “무능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 권정석 기자

## ‘불출마·탈당’ 대전 서구갑·유성을 지역 최고 격전지로 부상

### 국회의장 역임 6선 박병석 불출마·이상민 의원 민주당 탈당 이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전 유성을과 서구갑 지역구가 지역 최고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12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라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9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유성을 지역구는 최근 5선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총선을 향한 복잡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과 신당 참여,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종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지난 5일 “유성을 지역구 이외엔 고려하지 않는다”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과의 당내 경선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장을 내비쳤다.

국민의 힘 유성을 당협위원장 자리는 지난달 정상철 전 충남 대총장이 직에서 물러나면서 현재 빈자리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을 지역구는 치열한 예선전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경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20년 넘게 국회의원을 지낸 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서구갑 지역구도 여야 후보군만 10명 안팎으로 몰리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민의 힘에서는 검사 출신인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경석 전 대전시의원, 조성천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필용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유지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영선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 이지혜 대전시당 대전군형 발전특별위원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각 예비후보는 무주공산인 지역구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선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구에서는 협력의원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는 등 지역 총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모든 지역구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형민 기자

# ‘채상병 순직’ 사단장, “물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로 고발당해

‘채상병 대대장’ 변호인, 공수처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다.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



실종 해병장병 찾기위해 물속으로

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

려했다.

고발장에는 A 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

고답했다.

종자 수색에 나섰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다면 B 중령은 이날 열린 해병대 지휘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

통제본부 오후 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탐

이 아직 깊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카카오

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비록관식으

로 무릎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절러보

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

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

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

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

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함됐다.

들어가라’ 명령을 직접 스스로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대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SNS 캡처본 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송원기 기자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구속기소

사생활 사진·영상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 보내  
경찰, 황씨 ‘불법촬영’ 혐의 계속 수사 중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계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황씨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씨를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 최준용 기자

## 흉기로 협박하다 도주 경찰, 테이저건 쏘 체포

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손님을 협박하다가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A 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한 뒤 업주와 대화하던 손님 B 씨와 시비가 불자 밖으로 나갔다가 흉기를 쟁겨 다시 들어와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는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고 1 km가량 빠져온 경찰관을 밀치고 다시 달아나려다가 테이저건 1발을 맞고 불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를 조사한 뒤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다.

/ 강순호 기자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끊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

‘후배 임혜동 폭행설’에 김하성측  
“사실무근…협박당해 돈 지급”



또한 “김하성이 일방적으로, 상습적으로 상대 선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후배 선수’로 알려졌던 인물은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7)이다.

김하성은 2014년 넥센에 입단했고, 임혜동은 1년 뒤인 2015년 팀에 들어왔다.

청량증-신일고 출신인 임혜동은 2차 8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했으며, 프로 첫해인 2015년은 퓨처스(2군)리그에서 7경기에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10.45의 성적을 남겼다.

2016년에는 2군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고, 결국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그 해를 끝으로 팀을 떠났다.

‘김하성에 폭행’ 주장하는 임혜동은 2015년 넥센 입단했던 투수

“허위 내용 고소에 대해서는 책임 물을 것…심려 끼쳐 죄송”

임혜동은 구단에서 방출된 이후에도 김하성을 비롯한 키움 선수 몇몇과 사적으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성이 지난 7일 후배 선수에게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임혜동은 몇몇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준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최선은 “상대 선수는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 김하성은 성실히 결백함을 밝힐 것이며, 허위 내용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의 책임을 절실히 묻겠다”고 했다.

또한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는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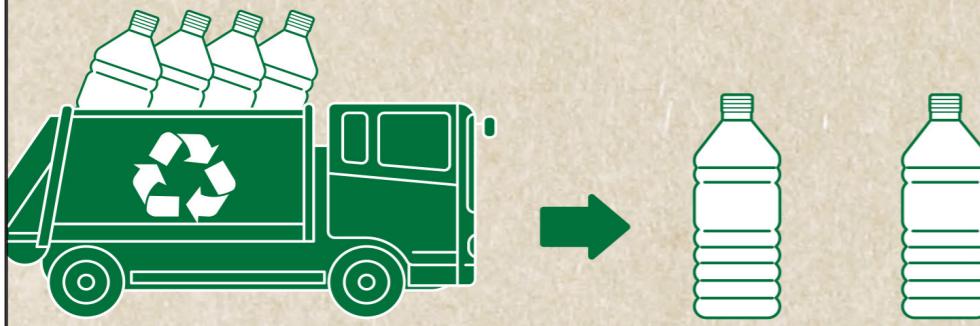
끝으로 법무법인 최선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김하성의 말을 전했다.

/ 민영철 기자



## Recycling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한 삼성전자 반도체의 PET 병 재탄생 스토리



삼성전자 반도체 자원순환센터

삼성전자 반도체 방진복에 담긴  
엄마의 마음

“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어요.  
”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에서는 버려진 PET 병을 활용해 만든 방진복으로 탄소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분석기술팀 소속 한 임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방진복의 소재가 PET 병과 같은 원료라는 것에 착안하여 만든 이 방진복은 석유 80% 절감 효과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60% 저감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재활용 원료 함량과 사회적, 환경적, 화학적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국제 인증 GRS(Global Recycle Standard) 획득이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도 앞치마, 장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임직원들의  
손길로 만든 인형, 달수

“  
PET 병으로 만든 삼성 ESG  
마스코트 달수 인형에는  
분리수거부터 세척까지  
우리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PET 병은 귀여운 인형으로 만들어진다. 바로 삼성 ESG 마스코트인 달수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임직원들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PET 병을 깨끗이 세척하여 재생섬유를 뽑아 달수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 눈으로만 보던 캐릭터가 만져도 보고, 안아볼 수 있는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PET 병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달수 인형은 많은 임직원의 사랑을 받으며 ESG 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리사이클링으로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Winter페스티벌

WINTÄ

2023.12.15.(금)  
~2024.1.21.(일)

환상과 상상을 오가는 빛의 예술이 서울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직접 보면 더 빛나는 감동, 놓치지 마세요.

세종로 자정의 태양(12.31~1.1)

보신각(소리의 빛) 제야의 종 타종행사(12.31~1.1)

DDP(빛의 혼합) 서울라이트 DDP(12.21~31), 서울콘(12.30~1.1)

열린송현 녹지광장(자연의 빛) 송현동 빛 축제(12.15~1.21)

광화문광장(시공의 문, 시공의 달) 빛초롱축제(12.15~1.21), 광화문광장마켓(12.15~1.21),  
서울라이트 광화(12.15~1.21)

청계천(하늘의 빛) 빛초롱축제(12.15~1.21)

서울광장(빛의 눈이 내리는 서울광장) 빛초롱축제(12.15~1.2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12.22~2.11)

문의 120다산콜

# 이상민 장관, 전국 17개 시도와 빈집 활용 대책 공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전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방문해 빈집 활용 대책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북촌포구집은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제주 해녀가 살았던 빈집을 리모델링해 활용 중인 숙소다.

다자요는 제주에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숙소 등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뒤 운영하다가 다시 집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 2천호가 넘었다"며 "빈집은 경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범지역으로 활용돼 그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에서 남성준 다자요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촌포구집처럼 빈집을 잘 활용할 경우 경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우수한 모

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방치된 빈집을 줄이기 위해 세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13만 2천호에 달하자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빈집을 재활용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북촌포구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잼버리를 해보니 화장실이 중요한 것 같다"는 농담을 던지며 화장실까지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이날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오래돼 해안 경관을 망치고 있는 각 시도 경찰 해안 초소를 리모델링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일명 '워케이션'(workation) 장소로 활용할 것을 이 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북촌포구집에 이어 민간 위케이션 시설인 질그랑이센터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제주를 찾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 황순길 기자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앞 인도에서 제주유아학교연대가 결의대회를 열어 유보통합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 제주 유치원 교사들

### "현장 의견 무시한 졸속 유보통합 저지"

제주지역 유치원 교사들이 정부의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유아학교연대는 7일 오후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앞 인도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무시한 졸속 유보통합을 저지한다"며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유아학교연대는 한국국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주지부, 전교조 제주지부 유치원위원회, 제주교사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 장관 업무에 영유아 보육 업무를 추가하는 정부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 전 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 전문가 이자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며, 유보통합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유아학교연대는 또한 "제주도의회는 유보통합 관련 포럼을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행사 이를 전 상황설명 없이 취소했으며, 교육청은 쥐도 새도 모르게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당일 공문을 보내 순식간에 추진단 회의를 여는 등 보여주기식 졸속·밀실 행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유아학교연대는 "성공적 안착을 바란다면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귀담아듣는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현주 기자

## 교육부·서울교육청 강남 학원 합동점검...“불법 여부 체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물가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안을 중심으로 교습비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를 정해진 기준보다 초과 징수하는지, 교재비 등 기타 경비를 불법으로 거둬들이는지, 교습비를 미게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부터 오는 13일까지 대입 시즌을 맞아 진학 지도 중인 학원에 대해서도 과대광고 가 있는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 손현수 기자

## 동해시, 내년 68개 노인 일자리 사업에 198억 투입

### 4개 유형에 5천275명 일자리...“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원 동해시가 가속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동해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만7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198억원을 투입한다.

사회 서비스형과 취업 알선형 등 모두 4개 유형의 68개 사업에 5천275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170억원, 4천997명 규모와 비교하면 사업비는 16.1%(28억원), 인원은 5.7%(278명)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일자리 참여자는 행복한 경로당 봉사 도우미, 반짝반짝 거리 지킴이, 환경지킴이 활동, 취약계층 식사 지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 활동 등에 투입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초고령사회 들어나는 노인 인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 창출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양승진 기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이 되기 위해**

치매와 싸우는 당신 곁에서  
언제나 힘을 주는 사람들,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화생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화생명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부)



## 한화생명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부)

'치매 보장개시일'은 개막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 상품의 해외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증금에 기초지급금을 합하여 1년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며 보호되지 않습니다. **경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재되어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기업 여부에 따라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http://www.hanwhalife.com)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4104호 (2023-09-05 ~ 2024-09-04)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3-08-103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8일 팥기 품종 사업 농가에서 열린다.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한다. 평가회는 울산 북구 중산동 시

재배면적 80~85%를 차지하는 품종 '설향'과 비교해 재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센터는 팥기 품종 보급을 통한 품종 다양화와 지역에 맞는 품종 선택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팥기 재배 농가를 선정해 팥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평가회는 팥기 품종 '비타베리'의 재배 특성 등 정보 공유, 현장 재배 우스 견학, 시식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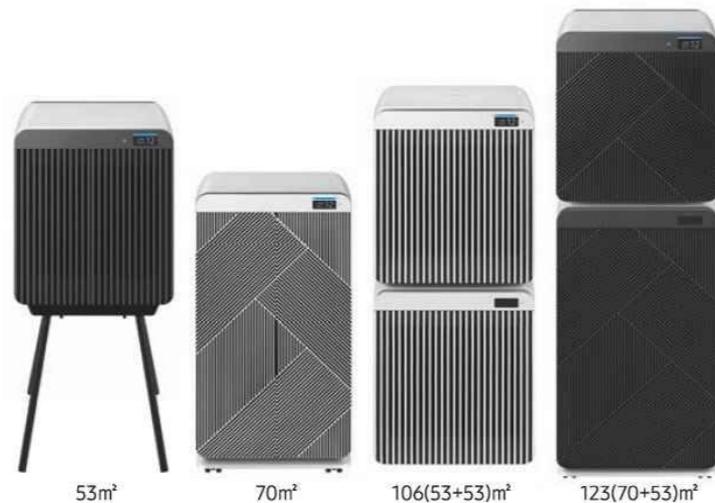
센터는 시식행사에서 설향보다 당도가 높은 점, 과육이 단단해 식감이 아삭하고 저장성이 우수한 점, 비타민C도 더 많이 함유한 점 등 비타베리 품종의 장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에서 설향 품종에만 의지했던 기존 재배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종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SAMSUNG**

“ 다시 찾아온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전국이 ”  
**비스포크 큐브 에어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로 실내 공기질까지 학습해  
똑똑하게 관리해주는  
**BESPOKE 큐브™ Air**

\* 맞춤설정 AI+ 학습된 실내의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깨져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 · 실외 공기  
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 표준 협회 주관 AI+ 인증 취득 \* BESPOKE AI+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 (한국 국제 표준 ISO/IEC 25025:2016) \* BESPOKE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인공지능  
설정으로 설정 필요 ·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상상당문 참조)

**가전을 나답게.**

## 내달 출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정 특례 7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

전북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 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 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다.

전통문화 분류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



전북특별법 개정안 설명하는 김관영 전북지사

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체류

등 특례도 반영돼 전북 지역이 국가 테스트베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2024년에는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

친다.

한편, 세종시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유지를 위해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와 대규모 기반 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부대 경비 증가 등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송진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 옹진군 백령농협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 외국인 체납자 증가 김해시, 급여·전용보험·차량 압류

#### 2천900여명·14억 체납…시 “체납 발생 후 출국 가능한 점 개선해야”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 배포

경남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에 체납자들도 뎅달아 늘어나자 시가 이들의 급여와 전용보험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이들의 급여와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 등을 압류해 체납세 1억7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일부 공장 밀집지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34대를 영치하는 등 강력하게 추징했다.

/ 권정석 기자

### 인천 고향사랑기부 참여 시들

#### “답례품 발굴 등 활성화 모색”

올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인천 출향민들의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10월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등에 따르면 인천은 이 기간 모금액이 2억1천590만원(2천90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인천보다 모금액이 적은 지역은 세종(7천683만원)뿐이었다.

인천과 같은 수도권인 서울은 5억6천 45만원(7천922건), 경기는 11억961만원(1만2천327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광주 8억5천673만 원(6천244건), 부산 4억2천825만원(6천 580건), 울산 4억4천907만원(3천956건), 대구 3억8천880만원(5천84건), 대전 2억2 천948만원(2천450건)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

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구가 모두 도시 지역이어서 농어촌 지역에 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도가 약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또 인천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68만명인데 이 중 48% 정도가 인천과 가까운 경기와 서울에 살고 있어 기부 참여 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 시행 첫 해였던 만큼 앞으로 답례품을 다양화해 기부를 활성화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종기 기자

### 하남시 학부모들, ‘교육지원청 설립’ 건의문 대통령실에 전달



건의문에는 가평·여주·양평·포천 등 경기도에서 하남시보다 인구가 적은 도시들에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있는 점, 향후 10년 내 하남시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는 점 등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한 이유 등을 담았다.

현재 하남에는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시 소재)이 광주와 하남지역 교육행정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하남을 비롯해 군포·의왕, 화성·오산,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6곳 교육지원청이 복수 지자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2017년부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해온 하남시는 올해 초 이현재 시장이 임태희 도 교육감과 면담하고 교육지원청 신설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 신재일 기자

### 충북형 학습플랫폼 다채움 시범수업…현장 적용 점검

충북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충북형 교수·학습플랫폼인 ‘다채움’의 학교 현장 적용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다채움 시범운영학교인 동화초등학교는 8일 윤건영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움을 활용한 시범수업을 펼쳤다.

5학년 과학을 대상으로 한 이날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것으로 출석 체크한 뒤 ‘채움클래스 수업방’에서 수업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업은 학교급별, 교과별 문제와 다양한 교육자료, 평가지 등을 갖춘 ‘AI아카이브’의 문항과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사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누적해 저장하는 기능이 있



는 ‘포트폴리오’에 학생들의 학습활동 내용을 등록했다.

이어 ‘AI문제은행’의 형성평가 문제나 학생들끼리 전송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범수업을 마친 뒤 교사들과 윤 교육감,

도교육청·청주교육지원청·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들이 다채움의 활용 방법,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은 오는 14일에도 일신여중에서 시범수업을 하는 등 내년 2월까

지 다채움의 학교 현장 활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화초의 한 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 방식의 수업에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교사들도 다채움을 활용한 수업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채움은 충북도교육청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학습수준 진단, 맞춤형 학습추천, 학습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학습을 지원하는 콘텐츠가 텁재돼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3월 다채움을 개통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30개 초중고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 김유정 기자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하겠습니다.

LG

LG



NH농협금융

#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탠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

## '신빙속여제' 김민선, 월드컵 두 대회 연속 500M '금빛 질주'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금메달을 따낸 김민선(가운데)

'신(新)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이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두 대회 연속 500m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김민선은 9일(한국시간) 폴란드 토마슈 프마조비에츠키의 로도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 그) 1차 레이스에서 37초82로 결승선을 통과, 페케 콕(네덜란드·37초95)을 0.13초 차로 따돌리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로써 지난 월드컵 3차 대회(37초73)에서 이번 시즌 첫 금메달을 따냈던 김민선은 두 대회 연속 '금빛 질주'를 펼치는 기염을 토했다.

월드컵 랭킹 포인트에서 298점을 쌓은 김민선은 선두 에린 잭슨(미국·314점)을 16점 차로 압박하며 이번 시즌 500m 월드컵 랭킹 2위에 올랐다.

김민선은 지난 3차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새로 교체한 스케이트 부츠 대신 익숙한 예전 부츠를 신고 레이스에 나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예전 스케이트화 신고 3~4차 대회 연속 금메달 정재원은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 '시즌 첫 메달'**

김민선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스케이트 부츠 교체를 단행했다.

스케이트 부츠를 바꾸면 초기에 기록이 떨어지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2026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겠다는 포석이었다. 김민선은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4차례 500m 레이스를 펼쳐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에 그쳐 새 스케이트 부츠 적응에 애를 먹었다.

저조한 기록이 이어지자 김민선은 계획 수정에 나섰다. 자칫 부진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예전 스케이트 부츠를 다시 신고 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지난 3차 대회에 예전 스케이트 부츠를 착용한 김민선은 단숨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 2회 연속 우승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마지막 10조 아웃코스에서 잭슨과 맞대결한 김민선은 첫 100m에서 10

초54를 기록, 전체 6위에 그쳤지만 나머지 400m 구간을 가장 빠른 27초2로 주파하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금메달을 완성했다. 김민선은 한국시간 10일 새벽 500m 2차 레이스에서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남자부 매스스타트 디비전A에서는 정재원(의정부시청)이 이번 시즌 자신의 첫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

정재원은 7분32초35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한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지오반니니(7분32초24)에 이어 준우승했다. 함께 출전한 '베테랑' 이승훈(알펜시아·7분37초89)은 19위로 밀렸다.

이 밖에 여자 500m 디비전B(2부리 그) 1차 레이스에서는 이나현(노원고)이 38초63으로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남자 1,000m 디비전B에 나선 조상혁(스포츠토토·1분10초51)은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4위에 올랐다.

/ 최준용 기자



2루타 치는 박유연

## 두산 유망주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가 발각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포수 박유연(24)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구단에 숨겼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9일 "박유연이 지난 9월 술자리를 한 다음 날 오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선수가 구단에 보고하지 않아서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동산고를 졸업한 박유연은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으로부터 6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했다. 고교 시절부터 일발장타를 가진 포수로 기대를 모았고 입

단 첫 해인 2017년 주전 포수 양의지의 부상 때 잠시 1군에 올라왔다.

타격 정확도 때문에 1군에 자주 올라오는 뒷북이나 향후 주전급 포수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1군 통산 성적은 28경기 타율 0.250, 9안타, 3타점이다.

두산 구단은 박유연의 음주운전 적발을 인지한 직후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두산 구단은 다음 주 박유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 박민욱 기자

## 스켈레톤 정승기, 월드컵 시리즈 '생애 첫 금메달'

남자 스켈레톤 정승기(강원도청)가 2023-2024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자신의 월드컵 시리즈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승기는 8일(한국시간) 프랑스 라플라뉴에



팀 동료들과 사상대에 오른 정승기(가운데)

서 열린 2023-2024 IBSF 스켈레톤 월드컵 2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00초61을 기록하며 영국의 맷 웨스턴(2분00초69)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정승기는 월드컵 시리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월드컵 시리즈에서 정승기는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땄다.

정승기는 1차 시기에서 1분00초15

로 선두로 나섰고, 2차 시기에서는 1분00초64로 3위를 차지했지만 1, 2차 시기를 합쳐 2분00초61로 지난 2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웨스턴을 단 0.08초 차로 따돌리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더불어 정승기는 1, 2차 시기 스타트에서 모두 1위(1차 5초52·2차 5초51)에 올라 완벽한 금메달을 완성했다.

/ 이민성 기자

## 정동현, 중국 극동컵 알파인 스키 남자 회전 우승

한국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하이원리조트)이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남자 회전에서 이틀 연속 우승했다.

정동현은 8일(한국시간) 중국 하베이성 장자쿠우의 완룽 리조트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FIS 극동컵 알파인 남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36초31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사사카 아키히(일본)의 1분37초34를 1.03초 차로 따돌렸다.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회전에서도 1위로 들어온 정동현은 5, 6일 대회전 우승에 이어 나흘 연속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정동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FIS컵에서도 회전과 대회전 두 차례씩 레이스를 석권했다.

알파인 스키는 월드컵이 가장 높은 등



FIS컵 우승 시상식 때의 정동현

급의 대회고, 이어 극동컵과 같은 대륙컵, 그다음으로 FIS컵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열린 여자부 회전에서는 미케일라 스미스(뉴질랜드)가 1분40초48로 1위, 김소희(하이원리조트)는 1분40초76으로 2위에 올랐다.

/ 오혁준 기자

#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를 가치있게!

## 2023.12.1. ~ 2024.1.31.

2022년 지원금액

784억

지원대상

이동 / 청소년 134억

노인 69억

장애인 30억

여성 / D문화 31억

위기형 354억

지역사회 166억

해외 / 북한 4천 7백만

2022년 모금금액  
799억

자세히보기



사랑의열매는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사랑의열매

경기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4년만에 美관객들 만난 송강호 “할리우드 진출은 후배에 양보”

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 한달간 송강호 회고전…‘기생충’ 등 상영



미국 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팬들에게 사인해주는 송강호

“4년 만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 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7일(현지시간)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현지 관객들과 만난 배우 송강호는 이렇게 첫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재단이 마련한 것이다. 재단은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송강호의 주요 작품 13편을 상영하는 회고전을 열면서 그를 현지로 초청해 팬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게 했다.

이날은 첫 작품으로 ‘기생충’을 상영했다고 얘기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답은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나만의 창의적인 모습이 진정으로 봉 감독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쭉 연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봉 감독이 연출한 할리우드 영화 ‘설국 열차’에 출연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신선한 에너지를 얻었던 작품”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흔히 봉 감독이 디테일하고 섬세하다고 얘기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답은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나만의 창의적인 모습이 진정으로 봉 감독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쭉 연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의

주인공이 됐던 순간에 대해서는 “정말 언어를 뛰어넘어,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전 세계 관객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실감한 것이 가장 고무된 점이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꾸준히 영화를 하겠지만, 지금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여러 채널을 통해 콘텐츠의 소통이 너무나 다변화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년 5월쯤 (출연작인) OTT 드라마가 한 편 공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 기대작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독일의 빈 벤더스 감독이 일본에서 찍은 영화 ‘페페트 데이즈’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일본 영화 ‘괴물’을 꼽았다.

이어 그는 “(아카데미에 출품한) 한국 대표작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새롭고 힘 있는 영화”라고 소개하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 김희성 기자



에이티즈, 정규 2집 발표

## 에이티즈, 영국 앨범차트 ‘톱 100’ 2위 올라

BTS 정국은 영국 싱글·앨범 차트서 5주째 ‘롱런’

그룹 에이티즈의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월’(THE WORLD EP. FIN : WILL)이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2위에 올랐다.

정국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74위)로 5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 조형철 기자



김완선, 히트곡 담은  
베스트 리메이크 앨범 발표

가수 김완선이 7일 베스트 리메이크 앨범 ‘8 페이보릿 송즈’를 발표했다고 소속사 KWSunflower가 밝혔다.

이번 앨범에는 ‘가장무도회’, ‘나만의 것’, ‘빼애로는 우릴 보고 웃지’, ‘리듬 속의 그 춤’, ‘오늘밤’ 등 세대를 아울러 큰 인기를 누린 히트곡 8곡이 담겼다.

김완선은 이 곡들을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과 단독 콘서트 ‘2023 김완선 뮤직(MUSIC)’에서 선보인 버전으로 재해석했다. / 최희진 기자

## 라미란 “소시민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통쾌함 줄 것”

영화 ‘시민덕희’ 주연, 내년 1월 개봉

“실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대본을 읽었어요. ‘정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박영주 감독의 영화 ‘시민덕희’ 주연 배우 라미란은 7일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 달 개봉하는 ‘시민덕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평범한 소시민 덕희(라미란 분)가 잃어버린 돈을 직접 찾기 위해 중국 칭다오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덕희에게 돈을 뜯은 사기범 재민(공명)이 다시 전화를 걸어 온 게 실마리가 된다.

박 감독은 2015년 발생한 실화에서 영



감을 받아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영웅이 되는 실화에서 굉장한 힘을 느꼈다”면서 “(사기를 당한 건) 피해자들 잘못이 아니라고 진심을 담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미란 역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보면 통쾌할 것 같았다”며 “저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덕희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는 많은 ‘동료’들이 투입된다.

안은진은 지난해 개봉한 안태진 감독의 ‘올빼미’에서 소용 조씨 역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지만, 촬영 시기는 ‘시민덕희’가 먼저다. ‘시민덕희’가 안은진에게는 첫 영화인 셈이다.

그는 “최근 (내부)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봤는데 풋풋한 신인 시절 얼굴이 담겼더라”면서 “첫 영화라 너무 떨려 언니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장윤주 언니가 집에 와 1대1 레슨을 해줬다”며 웃었다.

/ 백현영 기자

##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http://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bitscorp.co.kr](http://www.bitscorp.co.kr)



## 채권도 신한투자증권

변동성 높은 투자환경

주식도 꺼려지고, 예금도 꺼려지는 시장상황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투자 트렌드, 채권!

국공채, 우량채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알파 앱,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채권 매매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상담전화 : 1588-0365 | [www.shinhansecom](http://www.shinhansecom)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채권>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 채권은 시황 및 경과기간 등에 따라 수익률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133호(2023년 2월 3일 ~ 2024년 2월 2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363호 (2023년 02월 06일 ~ 2024년 02월 05일)